

## 목 장 예 배

### 2025 년 6 월 전반기

제목 / 구원받은 세 사람

본문 / 사도행전 16:27-34 / 찬송 286 장(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 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세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자주색 옷감을 파는 (                      ) 입니다.**

루디아는 당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루디아는 이들 상류층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그녀의 기질답게 바울에게 15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집이 다 세례를 받고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의 열심있는 신앙으로 인해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 최초의 회심자였습니다. 루디아는 열심으로 주를 섬겼고,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루디아는 선교에 필요한재 정을 지원하며 바울의 선교사역을 도왔습니다.

**둘째, ( )을 치는 한 여종이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로 온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린 여종은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러 댔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은 그 즉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드렸습니다.

여종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주인 은 더 이상 소득이 생겨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은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소하게 됩니다.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20-21 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하지만, 귀신들린 여종은 이미 정상으로 돌아와 주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구원받은 ( )가 있습니다.**

바울은 점치는 여종의 주인으로 인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찢기고 피가나 괴로웠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감사 찬송을 드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6~27 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향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당시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받을 형벌을 간수가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자 간수는 29~30 절에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 둘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렇게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간수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수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간수와 가족은 변화 받은 것입니다.

루디아는 마음이 열려 말씀을 따랐고, 점 치는 여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었으며, 간수는 절망 속에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모습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우리 목장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새롭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 말씀과 함께하는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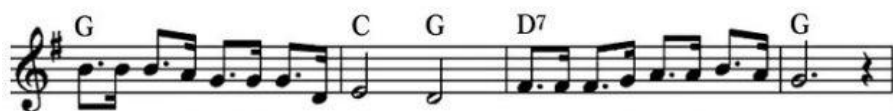
1. 루디아처럼, 나도 최근에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2. 점치는 여인처럼, 얽매어 있던 죄에서 해방된 적이 있습니까?
3. 간수처럼, 고난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4.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답: 루디아, 점, 간수)

##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이야기가 있 네 구세주의사랑이야기  
넓고넓은우주속에 있 는 많고많은사람들중 에  
사람들은이해할수 없 네 주를보낸하나님사 랑



영광스런천국떠난사 랑 나와같은죄인구 하려  
구원받고보호받은이 몸 주의사랑받고산다네  
이사랑이나를살게 하 네 갈보리의구속의사랑



주님의그사랑은정말 놀 랍네 놀 랍네 놀 랍네 오



주님의그사랑은정말 놀 랍네 나를위 한그 사 랑